

인용한 정보의 정확한 출처로 독자를 안내하자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언론에서 해외 소식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면 의아한 지점을 포착할 때가 있다. 기자가 한국에서 기사를 작성했고 기사에서 다룬 현장에 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누군가의 발언이나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사건·사고의 목격자들이 생생한 발언을 전하고 해외 고위 관리가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명확한 출처는 없다. 전후사정을 따져봤을 때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닌 것이 자명한데, 어디를 인용한 보도인지 알 수가 없다. 기사 초반에 'OO 외신에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한두 번쯤 등장하지만, 기사 말미에 등장하는 멘트도 OO 외신에 따른 것인지 제3의 출처를 인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포격을 다룬 기사¹⁾를 보자.²⁾

러시아군이 발사한 S-300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부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27일(현지시간)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소재 식당

1) 정윤영 (2023. 6. 28). 러軍, 우크라 동부 식당 포격...3명 숨지고 40여명 부상. <뉴스1>. URL: <https://www.news1.kr/articles/?5090566>

2) 이 글에서는 출처 표기상 어느 언론사에 표기된 기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나, 그 취지는 특정 언론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 같은 표기 관행은 특정 언론사를 넘어 대다수의 언론사에 퍼져 있다.

한곳을 포격해 최소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크라마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치열한 공세를 주고 받는 최전선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중략—

포격 당시 식사 중이던 목격자는 “식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잔해 아래에 갇혔다. 잔해 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포격 당시 막 식당에 도착한 32세 루슬란은 미사일이 식당 안에 있던 무리를 명중했다면서 “나는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피했다”고 **회상했다**. 그의 **이복 동생인 니키타**는 잔해 속에서 부상자들을 꺼낼 수가 없었다면서 **흐느꼈다**.

기사 초반에 언급된 ‘AFP통신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를 통해 추후 등장한 목격자 발언이 AFP통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확신’할 순 없다. 목격자 발언을 다룬 문장에서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설명했다”, “누가 흐느꼈다”와 같은 표현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흐느끼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라야 쓰는 표현이다. 사람 간에 대화를 할 때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설명했다” “흐느꼈다”고 하지 않고, “설명했다고 누가 말하더라” “흐느꼈다고 누가 말하더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다는 표기가 없는 기사에서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어색하기 마련이다.

문장마다 일일이 출처를 표기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매 문장에 ‘OOO에 따르면’, ‘OOO에 전했다’라고 표기할 경우 동어 반복을 하게 되거나 글의 리듬감이나 감칠맛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취재한 사안이 아니라면 독자들은 출처가 없는 발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거나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언론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일 때 출처 표기를 더욱 관대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발언이니 그것을 ‘무엇을 통해’ 밝혔는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포격 당시를 다룬 또 다른 기사³⁾를 예로 들자면 이런 식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3) 최재서 (2023. 7. 2). 우크라이나 동부, 러군 포격에 3명 사망·바흐무트 등 전투 격화.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2010400009>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울로 키릴렌코 도네츠크주 주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중략—

남부 헤르손주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주지사도 밤새 어린이 1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으며 러시아군이 대포와 드론, 박격포, 로켓 등 82발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북동부 하르키우주에서도 전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57세 민간인 남성 1명이 다쳤다고 올레흐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말했다.

—하략—

해당 기사의 바이라인에서 기자는 '서울'에서 보도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렇다면 프로쿠딘 주지사의 발언과 시네후보우 주지사의 발언은 어디서 취재된 것일까. 직접 인터뷰해 얻은 발언이 아니라면 출처가 표기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을 통해 밝힌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해외 현지에 취재기자가 없는 경우 국제뉴스는 대부분 외신이나 온라인 상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그런데 심지어 인용한 매체를 일부 흐리는 경우도 있다. 다음 기사⁴⁾를 보자. '확인한 내용'은 있는데, 출처가 된 '현지 언론'과 '현지 매체들'은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후 와해설이 돈 민간 용병 단체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오히려 세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숙청설까지 제기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최근 대외 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러시아군에 흡수돼 완전히 해체되리라는 일부 전망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용병을 파견해 영향력 확대 기회로 삼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바그너그룹 같은 민간 용병 기업(PMC)이 여전히 이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현지 시각)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그너그룹은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 용병 수백 명을 새로 파견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중아공에서 치러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치안

4) 정철환·류재민 (2023. 8. 1). 아프리카에 또 나타났다... '국제 조폭' 된 바그너 그룹.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8/01/4Q25UKHQCVDLRAN7F7UI30VMLU/

유지를 맡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28일 프리고진은 카메룬 매체 '아프리카미디어'에 "중아공에 새로 도착한 바그너그룹 병력은 기존 병력의 교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병력 철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야당과 반정부 세력의 투표 방해를 막으려 병력을 사전에 증강한 것"이라며 "(중아공 정권을 옹호해 영향력을 키우려는)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하락-

기자는 직접 취재하며 검증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기에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누군가가 어떤 발언을 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까지 검증해야 하는 게 저널리즘의 엄중함이다. 해외 이슈 보도의 경우 몇 명이 다쳤고 포탄이 몇 개나 날아왔는지를 국내에서 직접 취재해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처 표기라도 명확해야 한다. 최소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명확한 출처 표기라는 것이다. '어느 매체'에서 취재했거나 유명 인물이 '무엇을 통해' 밝힌 내용인지를 일일이 언급함으로써 독자가 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에디터로 일하던 알프레드 프렌들리(Alfred Friendly)는 이렇게 말했다.⁵⁾

"직접적으로 목격한 지식이 아닌 사건이나 조건, 상황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인용이다. 이것이 독자에게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의 신뢰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까닭에 출처 표기는 외신 보도를 넘어서 모든 기사에 필수적이다. 해외 우수 언론사들은 기자들이 무언가를 보도할 때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 나왔는지를 표기하게 한다.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한 것은 어디를 통해 말했다고 언급하는 식이다. 이를 명기한 가이드라인도 볼 수 있는데, <NPR>은 윤리 핸드북을 통해 "모든 것을 인용하라"며 주문한다.⁶⁾

"인용하고, 인용하고, 조금 더 인용하라. 다른 출처로부터 오는 어떤 자료도 인용 없이 문자 그대로 혹은 상당히 포함돼서는 안 된다. <AP> 보도로부터 오는 자료를 포함해서 말이

5) Friendly, A. (1999). 1958: Attribution of News. <Nieman Reports>. URL: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1958-attribution-of-news/>

6) National Public Radio (2023. 8. 7). <NPR Ethics Handbook>. URL: <https://www.npr.org/about-npr/688424402/special-section-attribution>



다. -중략- 기사를 인용할 때는 뉴스 미디어에 종사하는 동료들에게 공정해야 한다. 우리는 <NPR> 기사에 대한 인용 표기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단독이나 기획기사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다른 조직의 기사를 발췌하거나 인용할 때 그 조직에(언론사에) 관심이 가도록 해야 하며, 자사가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단순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원 소스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통용된다. 미국 온라인뉴스협회(Online News Association)는 ‘우리’ 항목을 통해 “온라인 기사에서 링크로 안내하는 것은 인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것은 이용자들이 단순히 인용 문구 하나보다 더 상세히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는다”고 안내한다.⁷⁾ 영국 온라인매체협회(Association of Online Publishers)는 원 출처에 대한 링크를 누락하는 것은 원 소스가 된 언론사의 트래픽과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출처를 명시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했다.⁸⁾ 협회에 등록된 언론사들이 자사 기사에 대해 제대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타사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후에도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7) Online News Association (2023. 8. 7). <Sources: Reliability and Attribution>. URL: <https://ethics.journalists.org/topics/sources-reliability-and-attribution/>

8) Joseph, S. (2021. 11. 29). ‘Exclusive is illusive’: U.K. publishers launch plan to mitigate loss of traffic when sources aren’t properly cited. <Digiday>. URL: <https://digiday.com/media/exclusive-is-illusive-u-k-publishers-launch-plan-to-mitigate-loss-of-traffic-when-sources-arent-properly-cited/>

국내 언론은 종종 자사 기사의 영향력이나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 기사의 링크를 걸지만, 타사 기사에 대해서는 링크를 거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링크는 ‘좋은 저널리즘에 관한 것이다. 기자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를 지낸 스티브 버트리(Steve Buttry)는 출처를 링크하는 것이 좋은 저널리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⁹⁾

“저널리스트는 종종 다른 저널리스트의 업무 결과물에 의존한다. 다른 저널리스트의 업무 결과물을 인용하거나 재정리한다면 이름과 링크를 표시하라. 좋은 저널리즘은 단순히 표절을 피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다.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인용은 링크 없이 불완전하다.”

기자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접 취재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고, 인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히 출처를 표기하고 링크까지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품질을 한층 높이는 작업이다. 

9) Buttry, S. (2012. 2. 27). 4 reasons why linking is good journalism; 2 reasons why linking is good business. <The Buttry Diary>. URL: <https://stevebuttry.wordpress.com/2012/02/27/4-reasons-why-linking-is-good-journalism-2-reasons-why-linking-is-good-business/>